

# 긴장격화의 장본인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공화국을 자국하는 군사적도발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남조선군부는 지난 4월부터 수만명의 군병력을 동원하여 전면병사태로 중단되었던 각종 훈련들을 편속 재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동안 남조선군장 접 미공군과 함께 대대공공증원훈련을 벌여놓았으며 오는 8월 미군이 주관하는 《림팩》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체계에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편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얼마전에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2호기를 비밀리에 끌어들이며 배치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거리 지상대공중미사일 《천궁》의 실전배치를 완료하고 2800t급신형호위함 《동해》호 진수식을 벌여놓았다. 그리고 수억US\$를 투자하여 2026년까지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를, 2030년까지 《한국형 구축함》을 개발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지금 전세계가 대유행전염

병사태로 촉박한 재난을 당하고있는 때에 이에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벌려대고있는 군사적대결소동은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철없는 군사적 망동이다. 가관은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껌번이다. 남조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은 《북이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고 떠들어대면서 군부대들을 돌아치며

상황발생시 숙달된 《대응지침》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라며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공화국과 제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해 보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흉심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음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어떤 말장난으로도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해로 몰아가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전명진

# 굴종의 흑독한 대가

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남조선이 더 많은 방위비담금을 내라고 계속 강박하고 있다. 지난 3월 증순에 진행된 제11차 《방위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회의에서도 미국은 호상 받아들이실수 있는 합의에 이르려면 남조선이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것》이라며 압력을 가하였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이 《국방협력》을 위해 미국에 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방위비담금협상에서 미국이 상당히 유연성을 보였기때문에 남조선 《정부》도 융통성을 보여야 하며 공평한 몫으로 기여해야 한다

고 일방적인 혼시를 늘어놓았다. 가해자가 피해자후생을 내며 더 많은 《피해보상금》을 내라고 울러대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방위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비위를 맞추는데 몰골하고있어 민심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상정의 환심을 사려고 미국산 무기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쏟긴하는가 하면 반환되는 남조선감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의사를 보이는 등 비굴하게 놀아내고 있다. 지어 《협상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대미저자세에 대한

가련한 행태인것이다. 안팎으로 얻어맞는 남조선당국의 현실은 아부와 굴종의 대가가 참으로 흑독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길원

# 《저러니 지리멸렬 할수밖에 없다》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정당이 망하면 임박에 이어 말장 망하는것이 보다. 《이와야와 조소를 보내고 있다.》 민주개혁세력과 언론, 전문가들은 물론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아직 정권을 못 차리고 있다.》, 《사건투표조작설은 가장 경제고 추방해야 할 구태정치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해나서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해 지지율이 10%대로 대폭 떨어졌으며 역직당은 진보와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배척을 받아 더욱더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 본사기자

# 다 망한 집안의 개싸움

많은 현상금을 걸고 정보 조작자색출을 벌려다 못해 지어 민백관청원사이로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망신스러운 행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보수세력 내부에서조차 당에서 고작 한다는것이 내부싸움질뿐이다.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를 고사하고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러니 지리멸렬할수밖에 없다 하면서 《미래통합당》에 비난과 조소를 보내고 있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정당을 못 차리고 변변스럽게 민의에 역행하며 발광하는 정치시정배, 역직무리에게 차례진 응당한 대접이 일과 하

# 잡을 《지푸래기》도 없다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심의 배척을 받아 그 꼴이 말이 아니다. 최근 지지율이 갈수록 곤두박질하고 있는것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데 의하면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발표한이 때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선거를 앞두고 《보수대통합》의 미명하에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였다는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당안이 파벌들이 더 생겨나고 지금은 당내경쟁을 위한 파벌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당이 풍지박산날 위기에 처해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기 위해 제2대 《국회》의원당선자총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이러 벌려놓았지만 《김종인 체제》 구성여부와 권한, 운영기일문제를 둘러싸고 내부가 더한층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속에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밀려났던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 홍준표가 당밖에서 《미래통합당》의 위기수습을 위해 대선연인 비안공세를 퍼붓고 자문기구 구성을 비롯한 세력구합을 염을 올리려는가 하면 공명연히 《대통령》선거에 나설 의사를 드러내놓아 보수패당내부를 더욱 들쭉서 놓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다 립시당권을 쥐고 있는 원내대표 심재철마저 각파의 이해관계에 얽매게 대립되어 당안에서는 상식적인 말도 통하지 않는다. 당의 진로는 새 원내대표가 결정할것이라고 하면서 필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위기수습을 포기한것이나 다름없는것으로 하여 보수층속에서 차라리 완전히 망하여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탄식소리까지 울려나오고 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안에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는것도 문

# 5. 18 진상규명, 역사외곡행위처벌을 위한 조사활동 등을 선언

3일 남조선 《연합뉴스》가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4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각계에서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을 폭로하고 역사외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투쟁이 확대되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1980년 5월 전투한의 《정권》 찬탈에 맞서 일어났던 5.18민중화운동의 진상규명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역사와 정신이 심히 외곡되고 지금도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광주를 봉쇄하고 언론을 장악한 전투환태당은 5.18항쟁을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으로, 항쟁에 참가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폭하는 행위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 5.18민중화운동 40년을 계기로 5.18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광주학살만행의 주범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은폐되어 온 범죄진상 등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밝혀낼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5.18반란단체들과 각계 단체들은 광주 등 각지에서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확대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검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전대미문의 극악한 식민지총독정치

《문화통치》로 바꾸는 교활한 눈물을 흘려왔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에 조선에 대한 잔악한 군사통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총독은 무관민이 할수 있던것을 문관도 할수 있다는것, 헌병경찰제도를 《철책》이라고 《보통경찰》 제도로 넘어간다는것, 관리나 교원들에게 갈을 채우던것을 《메지》 한다는것 등을 요란스레 선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총독정치의 범죄적성격과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 제도로 개편한 후 경찰기관은 종전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었다. 특히 일제는 종래의 로골적인 헌병, 경찰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경찰을 대폭 늘이는것과 함께 헌병제도를 수습이 되고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일제는 방대한 규모로 확장된 경찰폭압구구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않으면 안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갖은 악독하고 비열한짓을 다하였다. 또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제물들의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내몰아 무참한 죽음과 가혹한 노예로등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잔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의 후과로 조선은 말그대로 파쇼적폭압과 살인만행이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 암흑천지, 인권불모지로 전락되었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지총독정치를 강행시한 죄행을 그 무엇보다도 파쇼적폭압과 살인만행이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 암흑천지, 인권불모지로 전락되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대유행전염병과 관련하여 언급

세계적으로 《COVID-19》가 날로 더욱 확대되고있는 속에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6일 많은 나라들에서 봉쇄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세계적으로 4월부터

매일 평균 약 8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만일 각국이 단계적인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봉쇄조치를 다시 실시해야 할 위험이 현실화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또한 대유행전염병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하고도 탄력있는 보건제도를 수립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창씨개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